

□ 해월신사 탄신 156주년 (3월 21일) 회고 □

해월신사 연표

표

영

삼

純祖 27年 丁亥(1827) 1歲(해월신사)

○ 경주 동촌 황오리(皇吾里=경주시내)에서 3월 21일 부친 최종수(崔宗秀=己巳 1804년 6월 22일~辛丑 1841년 10월 15일) 어른과 모친 월성 배씨(月城 裴氏=?~壬辰 1832년 4월 22일) 사이에 태어나시다.

○ 본관은 경주요, 성은 최(崔)씨요, 명은 경상(慶翔)이요, 자는 경오(敬梧)요, 호는 해월(海月)이다. 포덕 16년 10월 18일에 이름을 시형(時亨)으로 고치시다. 신사(神師)란 교종 존칭이다. 황오리는 외가로 보이며 자라나는 영일군(당시에는 경주였음) 신광면 터일마을(神光面基日洞)이었다.

純祖 32年 壬辰(1832) 6歲

○ 모친이 병으로 4월 22일에 쓰시니 해월신사 나이 6세였고 누이동생 한분이 있었다(후에 林益瑞를 매부로 맞다).

純祖 34年 甲午(1834) 8歲

○ 8세부터 서당에 입학 공부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워 10세경부터 가사일을 도우시다. 신체가 건장하고 힘이 세었다.

憲宗 7年 辛丑(1841) 15歲

○ 부친께서 병환으로 33세에 세상을 뜨시니 남의 집 머슴이 되어 2년간 고생하시다.

憲宗 9年 癸卯(1843) 17歲

○ 영일군 기계면 오덕동(杷溪面 梧德洞) 오두막(오도리)에 있는 어느 제지소(製紙所, 한지)에 고용되시어 2년간 고생하시다.

憲宗 11年 乙巳(1845) 19歲

○ 밀양 손씨(密陽 孫氏, ?~己亥 1899년 10월 11일)와 결혼하여 흥해(興海) 처가 근처로 이사, 농사를 짓다.

哲宗 5年 甲寅(1854) 28歲

○ 고향 근처인 마북동(馬北洞)으로 이사하시다.

哲宗 10年 己未(1859) 33歲

○ 마북동 안쪽 검곡(劍谷)으로 이사하여 화전민이 되시다.

布德 2年, 哲宗 12年 辛酉(1861) 35歲

○ 남달리 종교적 심성이 강하여 세상과 인생에 대해 평소부터 회의를 품어 오시다가 신유년 6월에 수운대신사가 새로운 도를 편다는 사실을 알고 곧 달려가 입도하시다.

○ 한달에 2~3차례 대신사의 가르침을 받아가며 수도에 힘쓰시다. 어느 날 용담에서 천어에 대한 화제가 나와 이에 자극 되어 70리 밤길을 걸어 검곡에 돌아와 맹수련을 시작하시다. 문에 명석을 드리워 방안을 어둡게 만들고 수련을 하는가 하면, 단식 고행도 하시다. 포덕 3년 1월 초부터는 냉수목욕의 고행을 하시다. 이때 양신소해(陽身所害 又 寒泉之急座)라는 천어를 듣고 냉수 목욕을 중지하고 집에서 수도하시다. 이때 기름을 붓지 않고 등잔불을 21일 간이나 사용하는 이적이 나타나다.

布德 3年, 哲宗 13年 壬戌(1862) 36歲

○ 대신사가 포덕 3년 6월에 남원으로부터 경주로 돌아와 부서(府西) 박대여(朴大汝)의 집에 체질 때 영감으로 이를 아시고 찾아가다. 여러 가지 도담 끝에 천어에 대한 것과 등잔불 기름에 대한 것을 말하시다. 대신사께서 그것은 천어가 아니라 내가 수덕문을 초하여 읽은 것을 들었다 하시다. 해월신사는 이때 크게 깨닫게 되다. 그 후 더욱 수련하여 덕을 쌓아 동해안 지방에 많은 포덕을 하시다.

○ 9월 29일 경주 영장이 대신사를 체포하니 해월신사 관내 도인을 동원하여 경주 부중에 쳐들어가 항의하다. 이때 각지에서 모인 도인은 6~7백 여명이 되다. 5일만인 10월 4일에 대신사 풀려 나시다.

○ 대신사, 해월신사에게 은신할 곳을 부탁하니 흥해 매곡동(梅谷洞) 손봉조(孫鳳祚)의 집을 주선하여 11월 9일에 모시다.

布德 4年, 哲宗 14年 癸亥(1863) 37歲

○ 대신사 3월 9일에 용담으로 돌아와 들어내 놓고 포덕과 교화에 힘쓰시다. 6월경부터 개접하자 해월신사도 많은 제자를 동원하여 참가하시다. 7월 23일 파접(罷接)하는 자리에서 대신사께서 해월신사에게 해월(海月)이란 도호(道號)를 내리시며 북도중 주인(北道中 主人)으로 임명

하시다.

○ 8월 14일 이른 새벽, 수심정기(守心正氣) 네 글자를 써주며 이 무극대도는 너를 위해 나왔으니 나의 뒤를 물려 받아 소임을 다하라 하시며 도통을 전수하시다. 그리고 「용담수류사해원 검악인재일편심(龍潭水流四海源 劍岳人在一片心)」이란 글을 써주다. 이로부터 접주들은 검곡에 들러 해월신사를 뵈고 용담정으로 찾아 오도록 하시다.

布德 5年, 高宗 1年 甲子(1864)
39歲

○ 대신사 포덕 4년 12월 10일에 제자 26명과 같이 체포되어 대구감영에 1월 6일 수감되시니 해월신사 그 뒷바라지에 힘을 기울이시다.

○ 1월 20일부터 대신사 고문을 당하실 때 수제자인 해월신사의 소재를 추궁한다 하므로 그날 저녁 김춘발(金春發)을 대동하고 안동지방으로 피신하시다. 이 때 안동접주 이 무중(李武仲)의 도움을 얻다.

○ 4월 경 해월신사 관의 지목으로 급히 피신하다. 영덕을 거쳐 평해로 가서 황 주일(黃周一)의 주선으로 울진(蔚珍) 죽변(竹邊)지방에 은신하시게 되다.

布德 6年, 高宗 3年 乙丑(1865) 39歲

○ 해월신사 교단을 재수습키 위

해 힘을 기우리시다. 먼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필사본으로 만들어 보급하는 한편 연중 4차례씩 특별기도(49일간)를 봉행토록 하는 제도를 만드시다. 그리고 3월 10일 순도일과 10월 28일 탄신일에 집회하여 향례를 올리는 제도도 만드시다. 이때 정선군 문두곡(文斗谷)에 은신해 있던 대신사부인인 박씨사모님이 찾아오게 되어 거처를 주선했 주시다.

○ 10월 28일 대신사 탄신 향례를 검곡에서 봉행할 때 각지 도인들이 모인 가운데 인내천의 설법을 하시다.

「인은 내천(乃天)이라. 고로 인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나니 인이 인위로써 귀천을 분(分)함은 시(是)천에 위(違)함이니 오 도인은 일체귀천의 차별을 철폐하여 선사(先師)의 지(志)를 부함으로써 위주하기를 망(望)하노라.」

布德 7年, 高宗 4年 丙寅(1866) 40歲

○ 상주에서 3월 10일 대신사 순도 향례를 봉행하고 적서타파(嫡庶打破) 설법을 하시다. 이때 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계(契)를 조직하였는데 1인당 4전씩 내기로 하다.

布德 8年, 高宗 5年 丁卯(1867) 41歲

전년에 일어난 병인양요(丙寅洋擾)

로 탄압과 지목이 심하여 2월에 예천군 산수리(山水里)로 피신하시다. 이때 대신사 부인이신 박씨사모님은 상주 동관음(東觀音)으로 가시게 되다.

○ 10월 28일 홍해에서 대신사 탄신향례를 올리시고 양천주(養天主) 설법을 하시다.

布德 9年, 高宗 6年 戊辰(1868) 42歲

○ 예천에 계시던 1년만인 3월에 영양군 일월산 용화동 뱃치(龍化洞竹峴)로 옮기시다.

布德 10年, 高宗 7年 己巳(1869) 43歲

○ 강원도 양양에서 30여호가 입도하자 해월신사가 직접 지도하시다.

布德 11年, 高宗 8年 庚午(1870) 44歲

○ 진주민란을 도모하다 발각되어 영해에서 은신하고 있던 이 필제(李弼濟, 포덕 4년 5월경 입도한 것으로 추측됨)가 10월에 사람을 보내어 대신사 신원운동을 제안해 오다. 자중하기를 타일렀으나 전후 5차에 걸쳐 교인을 보내 계속 주장하다.

布德 12年, 高宗 9年 辛未(1871) 45歲

○ 2월에 이필제와 접주들을 만나

의론한 후 3월 10일 대신사 순도일에 영해부(寧海府)에서 신원운동을 거사키로 하다. 12개 군현에서 9일 저녁까지 5백여 교도들이 모여 새벽을 기다려 성중에 쳐들어가다. 이 필제 일파가 영종하게 부사를 살해하는 등 민란을 기도하므로 많은 교도들이 이를 보고 철수, 해월신사가 계신 뱃치로 오다. 이 필제도 하루만에 뒤팔아오니 관군이 추격하여 포위 공격하다. 2일간 저항했으나 세부득이 하여 해월신사와 강수(姜洙), 이 필제(李弼濟), 전성문(全聖文) 등은 밤중에 봉화 쪽으로 피신, 낮에는 숨고 밤에만 걸어 수일만에 단양 가산리에 오다. 이 때 30여명이 순도하고 3백여명이 체포되어 유배되거나 집을 떠나 피신하게 되다.

○ 해월신사, 단양 정석현(鄭錫鉉)의 집에 은신 고용살이를 하다가 5월에 강수가 찾아와 동정이 수상하다하여 급히 영월 정진일(鄭進一)의 집으로 옮겨 은신하다. 이때 강수와 의형제를 맺다.

○ 8월 2일 이 필제(李弼濟), 정기현(鄭基鉉), 김낙균(金洛均) 등이 주동하여 문경 초곡역 군영을 공격하다 체포되니 지목이 다시 일다.

○ 9월 중순경 해월신사 강수와 황재민과 같이 직동 산중에 들어가다. 자연동굴에서 14일간을 굶주리며 지내시다 소금도 장도 떨어져 황재민은 고향으로, 해월신사와 강

수는 영월 지동 박 용걸(朴龍傑)의 집으로 내려와 은신하다. 이 때 해월신사는 박 용걸과 의형제를 맺는다.

○12월에 대인접물(待人接物)과 우·묵·눌(愚·默·訥)의 설법을 하시다,

布德 13年, 高宗 10年 壬申(1872)
46歲

○ 1월 중순경 양양에 갔던 대신사의 장자, 세 정(世貞=士衡·仁得)이 체포되다.

○ 대신사 제 3녀와 세정의 처가 3월에 인제에 갔다 체포되다. 5월 12일에 세정이 양양옥에서 장사(杖死)당하다.

○ 지목이 심하여 피신하다가 10월 16일 정선군 사복읍 정암사(일명 갈래사) 적조암에 강수, 유 인상, 김해성과 더불어 들어가 12월 5일까지 49일 간의 독공을 마치시다.

布德 14年, 高宗 11年 癸酉(1873)
47歲

○ 해월신사 여러 곳을 피신하시다가 12월 10일 정선 유 인상의 집에 들리다. 이 때 박씨 사모님이 9일에 환원하심을 알고 김 계약(金啓岳)과 같이 미천(米內洞)에 가서 수습하시다.

布德 15年, 高宗 12年 甲戌(1874)
48歲

○ 손씨부인이 3년 간이나 소식이 끊기자 3월에 안동 김씨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다. 단양 남면 사동(寺洞)으로 가서 정착, 강수와 더불어 대도의 재건을 도모하시다.

布德 16年, 高宗 13年 乙亥(1875)
49歲

○ 3월에 송두독(松阜)에 새 집을 짓고 이사하시다.

○ 10월에 강수(姜洙)를 도차주인(道次主人)으로 임명하다. 동월 18일에는 시(時)자 12자로 개명하고 활(活)자 12자로 개자(改字)하리다 하시고 스스로 경상(慶翔)을 시형(時亨)으로, 강수(姜洙=姜士元)를 강시원(姜時元)으로, 유인상(劉寅常)을 유시헌(劉時憲)으로 개명하다. 한편 용시용활(用時用活)의 설법을 하시다.

布德 19年, 高宗 16年 戊寅(1878)
52歲

○ 7월 25일 정선 무은담 유시헌의 집에서 대신사 때 파접한 후 처음으로 개접(開接)하다. 이 때 시천주의 시(侍)를 주제로 하여 의론하게 하다.

布德 20年, 高宗 17年 己卯(1879)
53歲

○ 11월 10일 강시원이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

를 달고하다.

布德 21年, 高宗 18年 庚辰(1880)
54歲

○ 4월 5일 대신사 득도일을 맞아 처음으로 기념 향례를 올린다.

○ 인제 갑둔리에서 대신사가 남긴 한문 경전을 모아 동경대전(東經大全)으로 간행하다. 5월 9일 각판소(刻板所)를 설치, 11일부터 착수하여 6월 14일에 1백부를 간행. 15일에 고천식을 행하다.

布德 22年 高宗 19年 辛巳(1881)
55歲

○ 단양 남면 천동(泉洞)에서 대신사가 남긴 국문경전을 모아 용담유사(龍潭諭詞)로 간행하다. 6월에 여규덕(呂圭德)의 집에 각판소를 설치하여 완공시키다.

○ 충청도 청주·목천·공주·예산지방으로 교세가 뻗기 시작하다.

布德 23年, 高宗 20年 壬午(1882)
56歲

○ 6월에 신사 단양으로부터 정선군 갈래면 장정리로 이사하시다. 임오군란 후 세상이 불안해지자 각포(各包)에서 입도자가 늘어나다.

布德 24年, 高宗 21年 癸未(1883)
57歲

○ 2월에 충청도 목천 복구정(伏

龜亭) 김은경(金殷卿·鏞熙)의 집에서 동경대전 1백부를 간행하다.

○ 3월에 손병희, 손천민, 박인호, 서인주, 윤상오 등 충청도 교도들이 많이 찾아오다. 이때 「일용행사가 도아님이 없다」 하시고 11개조의 수도 규범을 반포하시다. 그가 운데 알려진 9개조항의 수도 규범은 다음과 같다.

충군상(忠君上), 효부모(孝父母), 용사장(隆師長), 목형제(睦兄弟), 별부부(別夫婦), 신봉우(信朋友), 홀인리(恤隣里), 수신제가(修身齊家), 대인접물(待人接物).

布德 25年, 高宗 22年 甲申(1884)
58歲

○ 6월에 신사 지목이 심하여 전라도 익산으로 피신, 박치경(朴致京)의 주선에 따라 금마면 미륵산 사자암에서 4개월 간을 지내시다.

○ 10월에 상주 전성촌(前城村)으로 이주하다. 그리고 손병희, 박인호, 송보여 등과 공주 유구면 가섭사에 들어가 수련을 지도하다. 이때 세인의 지목을 피하기 위하여 「봉천상제 일편심 조화정 만사지(奉天上帝一片心 造化定萬事知)」라는 주문을 새로 만드시다.

한편 강서로 육임제(六任制)를 정하니, 교장(敎長), 교수(敎授), 도집(都執), 집강(執綱), 대정(大正), 중정(中正)이다.

布德 26年, 高宗 23年 乙酉(1885) 59歲

○ 5월에 보은 장내리로 이사하다. 여기서 유명한 천주직포설법(天主織布說法)을 하시다.

○ 6월에 신사 지목이 심하여 공주 마곡에 일시 피신하였다가 경상도 영천 불랫(火溪=영일군 기사면 소재)에서 2개월간 피신하시다. 9월에 다시 전성촌(前城村)으로 오시다.

○ 11월에 많은 교도들이 전국에서 찾아오다. 이때 사인여천의 수행을 설법하시고 특히 도가 부인은 어린아이를 치지 말 것과 사람이 찾아오면 천주 강림하였다 하라 하시다.

布德 27年, 高宗 24年 丙戌(1886) 60歲

○ 4월에 청결과 위생을 지키며 수도에 힘쓰라 통유하다. 6월부터 전염병이 심했으나 교도들에 피해가 없자 입도하는 사람이 늘어나다.

布德 28年, 高宗 25年 丁亥(1887) 61歲

○ 1월 15일 해월신사. 장자 덕기(德基=率奉 13歲)의 혼례를 치루다.

○ 2월 24일 안동 김씨 부인이 병으로 환원하니 원통봉하에 장례하다.

○ 3월 21일 해월신사 회갑연을 베푼 후 4월에 보은 장내리에 있는 손씨부인 집으로 살림을 합하시다.

○ 각지에서 입도자가 늘어나므로

육임을 임명하여 매월 1회씩 각지 두목으로 하여금 진리를 강론하도록하다.

布德 29年, 高宗 26年 戊子(1888) 62歲

○ 1월에 해월신사 전라도 지방을 순회하시며 새로 입도한 교도들을 지도하시다. 3월에 의암성사(손 병희)의 매씨인 손씨를 부인으로 맞다.

○ 11월에 인제집에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다시 중간하니 이것이 무자판(戊子版)이다.

布德 30年, 高宗 27年 己丑(1889) 63歲

7월에 지목이 다시 심해져 육임소를 파하고 피산 신양동(新陽洞)과 인제(麟蹄)를 거쳐 경상도 금산군 복호동(현재 금릉군 구성명 복호동)에 은신하시다.

○ 11월에 저 유명한 내칙(內則)과 내수도문(內修道文)을 손수 지어 반포하니 내칙은 태아교육이요 내수도문은 도가부인들의 수도 규범이다.

내수도문에서 「어린자식 치지 말고 울리지 마옵소서. 어린아이도 한 울님을 모셨으니 아이치는 것이 곧 한울님을 치는 것이니라」하시다.

布德 31年, 高宗 28年 庚寅(1890) 64歲

○ 4월에 강원도 인제군 갑둔리

이 명수(李明秀)의 집에서 「새소리도 시천주의 소리다」라는 유명한 설법을 하시다. 이 때 동경대전을 성경대전(聖經大全)으로 간행하시다.

○ 5월에 서인주(徐仁周)가 체포되자 신사, 석방운동을 하게 하다.

○ 9월에 신사, 청주군 금성동(현재 鎭川郡 金城洞)으로 이사하시다.

布德 32年, 高宗 29年 辛卯(1891) 65歲

○ 2월에 공주접주 윤 상오(尹相五)의 주선으로 공주 신평동(현 공주군 사곡면 신평동)으로 이주하시다.

○ 5월에 신사, 호남지방으로 가시어 전라좌도 두령 남 계천(南啓天)과 전라우도 두령 윤 상오(尹相五)간의 대립을 조정하고 남 계천(南啓天)으로 하여금 좌우도 편의장(左右道 便義長)에 임명하시다.

○ 6월에 태인 지금실(정읍군 산외면) 김 기범(金箕範=號·開南)의 집을 거쳐 청주 금성동에 오시다. 여기서 임사실천 10조목(臨事實踐十條目)을 반포하시다. (明倫, 守信, 守業, 臨事至公, 貧窮相恤, 男女嚴別, 重禮法, 正淵源, 講眞理, 禁滯雜)

○ 12월에 신 재련(辛在蓮)의 주선으로 충주 외서촌(外西村)에 이사하시다. 이 때 도의 운세를 묻자 신사 「산이 모두 검게 푸르고, 모든 길에 비단이 깔리고, 만국과 더불어 통상할 때니라」하시다.

布德 33年, 高宗 30年 壬辰(1892) 66歲

○ 신사 외서촌에서 진천 부창리(扶昌里)로 피신하시다.

○ 5월에 김 주원(金周元)의 주선으로 상주 왕실촌으로 다시 옮기시다.

○ 7월에 공주의 서인주와 수원 의서 병학(徐丙鶴)이 찾아와 대신사 신원운동을 제의하니, 신사 신중하도록 호유하시다.

○ 10월초에 서인주와 서병학이 도인을 공주에 집합시켜 충청감사 조병식에게 대신사 신원을 제소하다,

○ 신사 10월 17일에, 임의문(立義文)을 만들어 도인들에게 돌려 대신사의 신원운동을 호소하다. 27일에는 통유문을 내어 전주 삼례에 모여 전라감사에게 대신사 신원운동을 하기로 하다. 신사 왕실촌에서 삼례로 오던 도중 말에서 낙상, 손 천민에게 맡기고 참석치 못하시다.

○ 11월 1일에 전라감사 이 경직에게 ① 대신사의 신원과 ② 교당건립 ③ 탐관오리 처벌 등을 요구하는 소를 보낸다. 이 때 금주에서도 만여명 도인들이 따로 집회하여 압력을 가하다. 11일만에 감사로부터 동학의 금교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일이므로 자기 권한이 아니라 하다. 다만 탐관오리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회답하다.

○ 이때 신사의 현호(軒號)를 법현(法軒)이라 정하고 앞으로는 법현의 지휘에 따르도록하다.

○ 12월 6일 대신사 신원을 위해 도소를 보은 장내리에 두고, 대정부 대책을 마련하다. 이때 정부에 보낸 치서(致書)에는 도의 창도경위와 시천주 및 포덕, 광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우리 도인들은 한울님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 하며 사람을 숭배하기를 한울님 숭배하듯 하여 구천(舊天)을 혁(革)하여 신천(新天)을 개(改)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밝히다. 그리고 영동, 옥천, 청산과 무장, 고창, 김제, 만경, 정읍, 여산에 요민(擾民) 약탈이 심하다 지적하다.

布德 34年, 高宗 31年 癸巳(1893) 67歲

○ 충청감사와 전라감사가 대신사 신원은 조가(중앙정부)의 권한이라 하므로 대정부 투쟁을 결정하고 2월 10일에 서울에서 신원운동을 벌이기로 하다.

이때 많은 교도들을 위해 동경대 전과 용담유사를 간행하니 이를 「제사관」이라 하다.

총지휘는 차도주인 강시원(姜時元)이 맡고 간사에는 서병학이 맡기로 하고 소문은 손천민이 쓰기로 하다.

○ 2월 8일에 수천명 교도들이 서울로 올라가 남부(南部) 남서동(南

署洞) 최창한(崔昌漢)의 집에 봉소(奉疏都所)를 설치하다.

○ 10일에 치성식을 올리고 11일에 광화문전에 나아가 복소하다. 이때 나간 대표는 매일 40명 썩이다. 교대로 3일간 계속하니 소두(疏首)는 박광호(朴光浩)로 삼았다. 그러나 정부의 확실한 대답은 얻지 못하다. 삼례에서도 호남도인 수천이 모여 전라감사에게 신원을 호소(訴)하다.

○ 서울 광화문 복소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교도들은 곧바로 보은 장내리 도소로 모여드니 3월 초에 벌써 수천명이 되다. 특히 서울에 올라가 외국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동학지도부는 교조신원운동을 지양하고 보국안민, 척왜양을 내세워 반봉건 반제국주의 운동을 하다.

3월 10일 대신사 순도일을 기해 전국교도들이 동원되기 시작하여 민중시위에 들어가다. 신사 이때 대접주제를 창시하여 포명(包名)을 주게 되니 약 2만 7천여 교도들은 질서 정연하게 행동하다. 대표적인 포명으로는 충의(忠義) 대접주에 손병희, 충경(忠慶) 대접주에 임규호(任奎鎬), 청의(淸義) 대접주에 손천민(孫天民), 문청(文淸) 대접주에 임정준(任貞準), 옥의(沃義) 대접주에 박석규(朴錫圭), 관동(關東) 대접주에 이원팔(李元八), 호남(湖南) 대접주에 남계천(南啓天), 상공(尙公)

대접주에 이관영(李觀永), 덕의(德義) 대접주에 박인호(朴寅浩) 등이 다.

○ 정부는 크게 당황하여 외국원병까지 거론하다. 어윤중으로 선유사를 삼아 보내는 한편 충청병사 홍계훈으로 6백 군대를 동원, 압력을 가하다.

○ 4월 2일에 부득이 해산하다. 신사 5월에 칠곡 울촌리와 7월에 인동군(仁同郡) 금산군과 10월에 상주 별야를 거쳐 청산군 문바위골 김성원(金聖元)의 집에 이사오다.

布德 35年, 高宗 32年 甲午(1894) 68歲

○ 1월 10일 고부접주 전봉준이 1천군중을 이끌고 고부군을 습격 악정을 응징하다.

○ 3월 21일 백산에서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대접주는 전봉준을 대장에 추대 동학혁명을 선포하다.

○ 금구, 태인, 부안, 정읍, 고창, 무장, 영광, 함평, 장성을 차례로 점령한 다음 4월 28일 전주를 점령하다. 5월 8일 전주화약을 맺고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 폐정을 개혁하다. 전라도는 전봉준장군이, 남원지역은 김개남 대접주가, 나주 지역은 손화중 대접주가, 순천지역은 이인환·이방언 대접주가 맡다.

○ 5월에 청일 양군이 침입, 청일 전쟁이 일어나 청국이 패하고 일본

군이 득세하여 우리 나라 주권을 유린하다. 동학혁명군은 9월에 항일투쟁에 나서다. 이때 신사 전 교도에게 필기를 명령, 남북접이 하나가 되어 일어나다.

○ 10월에 세성산전투, 홍성전투를, 11월에 청주전투, 공주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엄청난 무력에 패하다. 동학혁명군의 주력부대는 원평전투를 끝으로 무너지다.

전봉준장군, 손화중 대접주, 김개남 대접주, 김덕명 대접주 등이 모두 체포되어 순도하다.

○ 11월에 경기·강원 각지에서 동학군이 관군 또는 민병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패하고 황해도 지방에서도 역시 패하다. 신사 동학혁명 재기포 때 임실지방에 계시다. 11월 초에 임실 가단(柯團)에서 의암성사 부대와 만나 장수·금산·무주·영동·청산·괴산을 거쳐 무극 되자니에서 12월 24일 최후의 전투를 치루고 해산, 인제 남면 느릅정 최영서(崔永瑞)의 집에 은신하다.

布德 36年, 高宗 33年 乙未(1895) 69歲

○ 동학혁명으로 수만 교도가 학살되고 체포되니 교세는 지하로 들어간다. 신사 청주전투에서 순도한 강시원 차주도를 몹시 애통해 하시다.

○ 12월에 신사 치악산 뒤 수혜너

미(車險)로 가서 은신하시다.

布德 37年, 高宗 34年 丙申(1896) 70歲

○ 1월에 손 병희에게 의암(義菴) 도호를, 손 천민에게 송암(松菴)이란 도호를 내리시다. 그리고 의암·송암·구암으로 하여금 집단지도 체제를 만들어 경통(敬通: 公文)을 보낼 때 3인이 연서하도록 하시다.

○ 2월에는 음성군 마로택에, 6월에는 괴산 청천면 산막에, 9월에는 상주 늪은터와 은척원(銀尺院)등지로 옮겨가며 은신하시다. 이때 평안도 지방에 포교가 되기 시작하여 교도들이 많이 왕래하다.

용강의 홍 기억(洪基億)·홍 기조(洪基兆)·임 중칠(林仲七)이 처음 상주 늪은터에 계시는 해월신사를 배알하다.

布德 38年, 高宗 35年 丁酉(1897) 71歲

○ 3월에 음죽군(현 이천군 설정면)영산동에 이주하여 노환을 앓기 시작하다.

○ 4월 5일에 제례의식을 향아설 위법(向我設位法)으로 바꾸시다.

이 때 제물의 음식을 참석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면서 「과일 한쪽이라도 빈부 귀천의 차별을 두지 말고 골고루 평등 분배하는 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다」라고 설법하시다.

○ 8월에 의암 성사께서 노환의 해월신사를 편히 모시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임 순호가 주선하여 여주 전거론에 지어둔 새집에 모셔다 피신케 하시다.

○ 12월 24일에 37세의 의암 손 병희에게 도통을 전수하시다.

布德 39年, 高宗 36年 戊戌(1898) 72歲

○ 1월 4일에 이천병정이 도인 권성좌(權聖佐)를 검거하여 앞세우고 해월신사를 체포하기 위해 기습하여 오다. 이 때 김 낙철(金洛喆)이 대신 잡히어 간신히 위기를 면하시다. 곧 흥천을 거쳐 두 달 후에 원주 송골(현 호저면 고산리) 원 진여(元鎭汝)의 집에 와서 은신하시다.

○ 결국 4월 5일 관군의 기습을 받아 체포되어 서울로 압상되시다. 서소문 감옥에서 노환으로 고생하시다 6월 2일 육군법원(현 단성사 뒤)에서 교형을 당하시니 72세이시다. 정암 이 중훈 선생의 정성으로 송파에 안장되었다가 포덕 41년 5월 1일 여주 천덕산하 현 묘지에 이장하다.

처형되실 때 할 말을 물으니 「내가 죽은 10년 후에 주문 소리가 장안을 진동하리라」하시다.

해월신사는 35세에 입도, 37세에 도통을 전수받아 72세에 이르기까지 도산검수를 넘으시며 동학의 기초를 공고히 세우시었다. ■

(부산 동천고교 교사)
국어교육 전공

朴 逸

동학가사 연구 <5·완>

— 目 次 —

- I. 序 論
- II. 龍潭遺詞와 東學思想
 - 1. 龍潭遺詞의 創作背景
 - 2. 龍潭遺詞에 나타난 東學思想
- III. 龍潭遺詞와 尙州 東學敎歌辭의 對比
 - 1. 律 格
- IV. 措辭의 特性
- V. 內容(主題)
- VI. 思想素
- VII. 要 約
- VIII. 結 論
- IX. 參考文獻

4. 思想素

용담유사는 동학이라는 독창적인 종교의 교리와 사상이 담겨 있는 가사이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표기문구나 문자에 의한 출현빈도만 갖고, 어떤 사상이 더 강하게 적용되었다거나, 기존 사상들의 복합체라고 할 때, 용담유사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오류가 될 수 있고, 용담유사를 파악하는 실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상주 동학교가사와의 대비분석을 위한 자료로서 부득이한 것이었으며, 또한 이 분석을 통하여 작품에 투영된 의식 성향의 부분이라도 웬만큼 이해하는 자료가 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과정에서의 어려움은 思想素 중에는 부정하는 측면도 자료에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용어의 쓰임에 따라 전혀 다른 사상의 것으로 전용된 것도 있었으며, 또한 道敎·巫·讖緯 등의 사상을 한 카테고리도 정한데도 무리가 없지 않았음을 시인한다. 용담유사는 사상을 표상한 어휘의 출현빈도를 조사하여 표를 만들었고, 상주 동학교가사는 「林下遺書 5편」 「昌德歌 9편」 「虛中有實歌 1편」 등 15편을 준거로 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너무나 자료가 방대하여 그 결과만 제시하는데 그친다.